



INSTITUT  
FRANÇAIS  
주한 프랑스문화원



## 한국에서의 어학 & 교육 협력

## - 소개 -

### 한국 학교 시스템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고려되며 한국이 이루어 낸 경제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유교 전통을 가진 이 나라에서 교육은 사회와 정치 상황에서 주요한 주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취학률은 높다 : 25-34 세의 한국인 98%가 중등교육을 마쳤으며 68%가 고등교육을 마쳤다. OECD 평균치가 83%와 41%임을 볼때 최상위 비율들에 속한다.

고등교육과정의 입학은 서류 전형이나 « 수능 »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한국 내 우수 대학들 중 하나에 입학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이 국가시험은 강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전문학원들에서 사설 수업을 받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학생들은 매주 50 시간의 수업을 받는 데 이는 OECD 평균보다 15 시간이 많다.

### 프랑스어 및 외국어 교육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영어는 학력 성취에 있어 주요 요소가 되는 과목들에 속한다. 이에 따라 전 학교과정에서 제 1 외국어로 교육하는 필수 과목이다.

제 2 외국어 교육은 선택이 되었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중에서 제 2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시험에서 제 2 외국어를 선택하는 응시자는 많지 않다 (응시자 16%가 선택).

다른 언어들과의 경쟁에서 프랑스어는 비교적 잘 버티는 편이다. 사실 현재 프랑스어를 배우는 전체 학생 수는 약 47,500 여명 (120 개 고등학교에서 28,500 명, 54 개 대학교 관련학과에서 9,000 명, 사설학원들 특히 6 개의 알리앙스프랑세즈에서 10,000 명 내지 12,000 명)이다. 이 수치는 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들의 일환으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 및 대학들에 부속된 어학센터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수치들을 볼 때 한국은 전체 인구 비례 프랑스어 학습자 수가 동북아시아에서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2016년 11월에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에 참관국 자격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아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북대학교는 프랑코포니 대학 연합(AUF)에 가입하였다.

한국에서 프랑스어 학습 장려와 그 가시성을 드높이기 위해 주한프랑스문화원은 계속하여 방법들과 행동 수단들을 채신하고 있다.

## - 우리의 4 가지 당면과제 -

주한프랑스문화원의 임무는 4 개의 전략 축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를 진흥하고 교육 교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

### 1. 첫째 축 - « 유익 »하고 현대적인 방법의 프랑스어 교육 지지

한국은 외국어 교육의 지역적 상황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적절한 언어 숙련을 할 수 있기 어렵고 또한 대학입시를 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다. 게다가 프랑스어는 여전히 문학이나 예술을 위한 언어로 인식될 뿐 과학이나 기술을 위한 언어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사명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방법들을 제안한다 :

-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언어와 프랑스 문화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어서 프랑스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창출하기;
- 프랑스어 학습자들에게 양자간 / 다자간 협력의 쟁점들 및, 더 일반적으로는,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프랑스어의 높은 위상 상기하기;
-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하는 덕분에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홍보하기.

### 2. 둘째 축 - 새로운 대중 공략하기와 프랑스와 프랑스어 이미지를 현대화 하는데

#### 힘쓰고 대학 프랑스어학과의 프랑스어 장벽 없애기

영상물들의 배포와 유희적인 디지털 앱들의 사용에 힘입어 새로운 대중들, 특히 어린 대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을 공략한다는 논리하에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는 한국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주안점을 둔다. 주한프랑스문화원은 교육당국들, 특히 교육청, 교육부, 교육학적 작업들 (교육과정 개발, 대학입학시험) 및 연구를 맡고 있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 3. 셋째 축 - 교육협력 강화하기

프랑스 학교들과 한국 학교들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학생들, 교사들간의 교류나 만남 프로그램들을 위해 학교들간의 관계 형성에 힘쓴다. 상호 만남들은 한국-프랑스의 교육청들간의 협약, 학교간 자매결연 또는 일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프랑스학교와 하비에르국제학교는 프랑스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4. 넷째 축 - 프랑코포니 진흥하기

프랑스어가 다양한 지리적 공간들에서 기회를 열어주는 언어이지만 한국인들에게 프랑스어는 일반적으로 프랑스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모든 권역 - 제도권, 정치권, 교육권, 경제권 - 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특히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프랑코포니 대학연합, TV5 몽드 등 세계 속 프랑코포니의 주역들과 연결시키면서 세계 속 프랑스어의 존재와 그와 연결된 문화적 다양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 우리의 행동 방법들 -

### 모든 축에 혼용

#### « 그리고 프랑스어를 합니다 Et en plus, je parle français » 캠페인 전개

파리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 (IF Paris)에서 제안된 이 캠페인은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한국에 맞게 적용되었다. 이 캠페인은 프랑스어를 배웠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프랑스어를 하는 한국인들을 내세워 그들이 왜 프랑스어를 배웠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통해 프랑스어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7년 4월에 시작하여 2019년 말까지 11명의 프랑스어 홍보 « 대사들 »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엔지니어, 간호사, 감독, 첼리스트, 창업자, 재경부 공무원 등 이들은 개인 여정이나 직업 이력, 프랑스어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의 학습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한다.

#### 학교 특강 & 학생들과의 만남

프랑스문화원은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서 특강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한-프 양자협력, 다언어사용의 쟁점들과 프랑스어의 유용성을 소개한다.

특강들은 기관 프로그램의 일환 (서울시 교육청의 « Open House », 유럽연합본부의 « EU Goes to School »)이나 일시적인 요청들에 따라 개최된다. 특강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간혹 프랑스 대사관저나 한국 내 프랑스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 1. 첫째 축 - 프랑스어 교육의 지지

#### 경연대회, 행사들 및 학교들의 프로젝트

한 언어의 학습을 일상적인 학교 생활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언어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행사들은 학습과정과 연결되는 교육적 프로젝트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프로젝트 교육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답하는 시도들은 주한프랑스문화원의 재정지원이나 명칭후원 또는 함께 프로젝트화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내일의 인재 장학 프로그램

내일의 인재 장학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혜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운 덕분에 자신들의 미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유익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들 – 공연 예술 (아비뇽 페스티벌), 영화 (라로셀 페스티벌), 인권 (IF Paris), 어학 능력 고취 (FLE 공인 인증 어학원) 또는 프랑스어 교수법 연수 (교육센터) – 에 대한 단기 (2주) 연수를 통한 국제적인 만남들을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네트워크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 DELF/DALF 프랑스어 능력 인증

프랑스어 능력 인증은 동기부여와 진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는 학습과정을 평가하고 어학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자격증의 취득은 프랑스어권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거나 한국의 대학 프랑스어 과정에서 어떤 학업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자격증들은 또한 직업 프로젝트에 있어서 프랑스어능력을 증빙하는데 꼭 필요하기도 하다.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한국에서 DELF/DALF 인증 장치를 주관하며 서울에서 시험을 조직하고 지방 -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 알리앙스프랑세즈들에 시험 조직을 위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Fprofs Corée 플랫폼 운영

교육 자료들과 방법론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한국에서 프랑스어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연결을 이롭게 하기 위해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파리의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IF Paris)이 시작한 프랑스어 교육자들을 위한 세계적 플랫폼의 분파인 IFprofs Corée 를 운영한다.

한국에서, 프랑스문화원은 교사들이 학급에서 쉽게 재사용할 수 있고 수업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 2 외국어인 프랑스어의 커리큘럼에 따르는 클레 앙 맹(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려 애쓴다.

아울러, 교사들이 더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인 교육연수를 열어 교사들의 교수법 채신과 실습의 동반자가 되려고 한다.

## 2. 둘째 축 - 새로운 대중 공략하기

### 각급 학교에서의 프랑스 주간

이 행사는 양국외교수립 130 주년을 기념하는 한-불 상화교류의 해 개막주간 행사들 중 하나로 2016 년 3 월 24 일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는 주간행사로 자리잡아 매년 10 월에 진행된다.

이 주간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프랑스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면서, 특히 한국의 주요 협력국들 중 하나이며 유럽에서 한국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 사회, 경제적 양상들의 발견을 통해 학생들이 이문화 이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8 년, 한국의 30 여개 도시에 분포된 120 여개 학교에서 약 20,000 명의 학생들이 각 학교의 교사들과 참여학교들을 위해 특별히 자료들을 준비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제안한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들을 통해 이 연례 행사에 참여했다.

### 교육 자료 구상과 배포

프랑스문화원은 한국 대중이 프랑스어를 발견할 수 있고 학습에 입문 할 수 있도록 알맞은 내용을 구상한다. 특히 프랑스 주간을 계기로 배포된 교육자료는 연중 행사들이 있을 때 요청에 따라, 또는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진행하는 아뜰리에들에서 직접 배포되었다.

### 디지털 콘텐츠 배포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프랑스문화원은 네이버 TV (프렌치 캐스트) 채널을 발전시켰다. 이 채널에서는 단편 비디오들과 프랑스어를 위한 볼거리 리스트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 자막과 함께 체계적으로 배포되므로 이 영상물들은 프랑스어 사용자가 아닌 대중도 쉽게 접할 수 있다.

### 프랑스어 강좌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완전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의 강좌를 제공한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서울프랑스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상호작용에 입각한 방법론과 유희적 방식의 수업은 학생의 프랑스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생의 만족을 이끌어낸다.

주한프랑스문화원은 두 번째 어학센터를 개설하여 온라인 강좌와 현장 강좌의 혼합형 수업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3. 셋째 축 - 교육 협력 강화하기 : 학교간 자매결연 발전시키기

자매결연은 학생들에게 가치가 큰 이문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학습을 시작하게 하거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이례적인 틀을 구성할 수 있다. 프랑스 학교들과 한국학교들간에 20 개가 넘는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4 개 지역의 교육청이 협약을 맺었다.

## 4. 넷째 축 - 프랑코포니 진흥하기 : 프랑코포니 축제 운영 & 전용 사이트 관리

매년 한국 내 프랑코포니 축제 추진위원회가 조정한 다수의 행사들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을 공유하는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다양성을 장려하며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사무국 임무를 맡고 있다. 2019년에는 축제 기간 동안 80 개 이상의 행사가 열렸다. 주한프랑스문화원이 한국 내 프랑코포니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